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0. 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UN 사무총장, “세계는 지금 유례없는 테러위협에 직면”

- 9.25 「구테흐스」 UN 사무총장은 안보리 각료회의에서 소셜미디어(SNS)와 다크웹(dark web)이 테러 선동·선전에 이용되고 폭력적 극단주의가 확산되는 등 유례없는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인권 존중과 테러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강조

미주

○ 美, 제재대상 기업 추가 조치 등을 통해 이란 압박 강화

- 9.25 「트럼프」 대통령은 이란·베네수엘라 고위공무원의 입국 제한 조치에 서명하고, 「폼페이오」 국무장관은 UN 총회에서 이란 석유 수입과 관련하여 美 제재를 위반한 중국기업(6개)과 중국인(5명)을 제재대상 목록에 올렸다고 발표하는 등 對이란 압박 강화

○ 美, 중동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합동항공작전센터(CAOC) 본토 이전 추진

- 9.30 WP는 '19.7월 이란의 미군 감시드론 격추와 '19.9월 사우디 원유 시설 드론피습 이후, 美공군이 지난 13년 동안 중동·아프리카 비행작전을 지휘해왔던 카타르 CAOC의 본토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고 보도
 - * CAOC는 이란과 320km거리에 위치해 충돌 발생시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

○ 美 드론연구센터, 전세계 95개 국가에서 군사용 드론 보유 추정

- 9.30 뉴욕 바드 칼리지 드론연구센터는 2019년 현재 군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95개국에 이르고, 최소 21,000~30,000대 이상의 무인기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최소 10개국이 드론을 이용한 공습·살상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
 - * 보고서는 특히 이스라엘·미국·중국을 드론 주요 수출국이라고 설명

아 · 태평양

- 미얀마, 주요도시 테러위협으로 美대사관 등 주의보 발령
 - 9.28 AP통신은 미얀마 주재 美·英·캐나다 등 대사관이 9월末~10월경 양곤·네피도·만달레이 등 대도시 테러 가능성*이 우려되어 최근 주재국 내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안내했다고 보도
 - * 북부 국경지역에서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소수민족 반군의 폭탄테러
- 아프간 언론, 자국 대선 투표율 20%대로 차기정부의 정통성 문제 우려
 - 9.30 현지언론은 대선(9.28) 투표자 수를 220만명으로(투표등록 970만명) 잠정 집계하면서 투표율이 '01년 아프간 전쟁 개시 후 역대 최저 수준인 20%대로 차기 정부의 정통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보도
 - * 탈레반의 테러위협, 기존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을 원인으로 분석

중 동

- 이라크·시리아, ISIS 주요근거지였던 국경검문소 7년만에 재개통
 - 9.30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는 국경 개방 기념식을 열고 ISIS의 최대 근거지 중 한 곳이었던 이라크 알카임* 국경 검문소를 7년 만에 재개통했다고 발표
 - * 이라크 북서부와 시리아 동부가 맞닿은 곳으로 이라크에서 출발한 ISIS가 시리아를 은밀히 오가며 세력을 키운 지역
- 터키, 시리아 접경지에 마을 건설 및 난민 이주 추진
 - 10.1 터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시리아 북동부 안전지대(길이 480km, 폭 30~40km)에 마을 140개와 주택 20만 채를 건설하여 시리아 난민 100만명을 이주시킬 계획으로 약 266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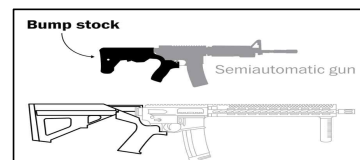
미국,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장 총기 난사

- '17.10.1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지역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테러범이 건너편 야외 콘서트장으로 총기를 난사하여 59명 사망·530여명 부상
 - 테러범 「스티븐 패덕」(64세, 남)은 만달레이 베이 호텔 32층 스위트룸에서 반자동 소총에 범프스탁*(Bump Stock)을 장착하고,
 - * 반자동 총기에 부착하여 분당 800발까지 자동 사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
 - 2만2천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'루트 91 하비스트' 컨트리 음악 축제 콘서트장을 향해 약 10분간 1천100발의 총탄을 무차별 난사
- 단독으로 테러를 저지른 「패덕」은 범행 직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확한 테러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,
 - 美 연방수사국(FBI)은 부동산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한 테러범이 범행 2년 전부터 도박으로 큰돈을 잃어 낙담한 것이 범행의 요인이라고 판단
- 이후, 美 법무부는 범프스탁(Bump Stock) 판매 및 사용금지 법안 마련

테러 상식

< 범프스탁(Bump Stock) >

- (정의) 총기의 반동을 이용해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반복적으로 당기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한 기구
- (구성) 피스톨, 개머리판
- (원리) 반자동 소총의 개머리판(Stock)에 범프스탁을 부착하면 사격시 발생하는 반동 에너지를 이용해 소총을 앞뒤로 미끌어지듯 빠르게 움직여서 연속 사격을 할 수 있는 자동소총 효과 발생



※ '16년 美 출시 이후 합법적으로 구매 가능했으나, '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에 범프스탁이 사용된 이후 美 법무부 입법으로 '19.3.26부터 전면 사용금지